K-배터리, ESS용 LFP 양산 속도 탈중국 등 글로벌 수주 역량 극대화

ESS 시장 중심 성장동력 강화

포스코퓨처엠 포항공장 등 생산 확대
엘앤에프 하반기 비중국 LFP 양산

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 전경. /뉴시스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사이 ESS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등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ESS용 LFP 양극재 양산 체계를 구축하며 비중국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ESS는 전기차보다 무게 부담이 적고 가격과 안정성이 중요한 시장이어서 LFP 적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업체들은 LFP 양극재 공급 기반을 넓히며 수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올 하반기 국내 최초로 비중국 LFP 양극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하반기 3만톤, 내년 상반기 3만톤 등 총 6만톤 규모의 생산 체계를 단계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SS 시장에서 비중국산 LFP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초기 공급 기반을 선점해 수주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퓨처엠도 ESS용 LFP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항 양극재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올해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신규 LFP 공장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이니켈 양극재 중심 제품군에 LFP를 더해 전기차와 ESS 수요 변화에 동시에 대응하는 구조다.

LFP 양산 준비와 함께 차세대 소재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확보를 위해 미국 스타트업 팩토리얼 에너지와 협력하고 있다. 미국 배터리 소재 기업 실라와는 포스코퓨처엠의 양·음극재 기술에 실라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결합해 첨단 배터리 소재 기술을 고도화하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는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차세대 소재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있다.

실적 측면에서도 ESS용 LFP 확대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분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와 고부가 제품 판매가 실적 회복을 이끌었다면 향후에는 ESS용 LFP 물량이 추가 성장 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앤에프는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와 판가·환율 상승 효과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396억원, 영업이익 11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포스코퓨처엠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575억원, 영업이익 177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4%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3.2%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용 LFP 배터리 물량 확대는 양극재와 부품·원자재 기업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원자재 확보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완성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전력기업, 북미시장 정조준 초고압 등 고부가 솔루션 공개

IEEE PES T&D 2026

LS일렉트릭 고신뢰 배전 시스템 소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생산 역량 뽐내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가 맞물리면서 초고압 송전·직류 배전·해저케이블 등 고부가 전력 솔루션을 앞세운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과 대한전선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IEEE PES T&D 2026'에 참가했다. IEEE PES T&D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가 주관하는 북미 대표 송배전 등 전력인프라 전문 전시회다.

LS일렉트릭은 직류(DC) 솔루션과 초고압 송변전 설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용 배전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미 시장 진출에 필요한 UL 인증 직류 배전반을 비롯해 345kV급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스태콤(무효전력보상장치) 등 전력기기 라인업을 소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효율과 안정성이 동시에 중요해지면서 직류 배전과 고신뢰 배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천안사업장에 직류 배전을 상용화한 'DC 팩토리'를 구축한 경험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 적용성과 데이터센터 대응 역량을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해저케이블,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미국에서 수주한 320kV급 HVDC 지중케이블을 비롯해 525kV급 HVDC 지중케이블, 국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적용 가능한 525kV급 HVDC 해저케이블 등을 선보였다.

해저케이블 분야에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의 생산 역량과 건설 현황도 공유했다. 해상풍력 전용 CLV 포설선 '팔로스'호와 해저케이블 전문 시공법인 대한오션웍스를 함께 소개하며 제조부터 시공까지 이어지는 토털 솔루션 역량을 부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북미 전력 시장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사양 전력기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며 "현지 인증과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일수록 초고압·배전·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전동화·리무진 '럭셔리 진화'… 프리미엄 MPV 방향 제시

YG의 CAR TALK 카톡

현대차 '스타리아'

천연가죽 시트 등 사용자 경험 개선

현대차 스타리아 리무진 외관.

"스타리아는 현대차의 프리미엄 MPV 미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이철민 현대차 국내 마케팅실 상무)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다목적차량(MPV) 시장 공략을 위해 스타리아 리무진 모델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MPV 시장은 국내는 물론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오토 차이나 2026에서도 글로벌 브랜드들이 MPV 차량을 선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스타리아 리무진은 과거 승합차의 이미지를 지우고 럭셔리의 전 차량으로 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 모델인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도 추가해 최근 전동화 전환 트랜드에 속도를 맞추고 있다.

이번에 현대차가 출시한 스타리아 리무진 6인승 모델에는 2열 전용 프리미엄 시트 '이그제큐티브 시트'를 적용했다. 최고급 세미 애닐린 천연가죽을 적용했다. 이 소재는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90 롱휠베이스 모델에 사용된 소재다. 최고급 원피에 가공과 코팅을 최소화해 천연가죽 본연의 부드러운 촉감과 자연스러운 주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프리미엄 가죽이다. 이그제큐티브 시트에 적용된 '에어 컨투어 보디케어'는 14개 에어셀과 5가지 마사지 모드를 제공한다. 암레스트의 스위치는 최대 14개 방향으로 시트 조절이 가능하다.

현대차 스타리아 리무진 실내 루프 전방에 탑재된 폴딩형 17.3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양성운 기자

암레스트 안쪽에는 마치 비행기를 연상시키는 테이블을 내장했다. 2열과 3열 천장 사이에는 '파노라믹 스카이 루프'를 적용해 은은한 실내 조명을 연출한다. 루프 전방에는 폴딩형 17.3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돼 이동중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급 수입차에서만 볼 수 있는 투톤 컬러도 적용했다. '트와일라잇 호라이즌 투톤'이라고 불리는 이 옵션은 ▲어비스 블랙 펄,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 ▲어비스 블랙 펄,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등 2가지다.

스타리아 리무진은 하이브리드 6인승, 하이브리드 9인승, 일렉트릭 6인승 등 총 3가지 라인업을 운영한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6인승 6909만원 ▲9인승 5980만원(개별소비세 미적용) 일렉트릭 ▲6인승 8787만원이다.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은 6인승의 경우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으면 8500만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로템, '한국형 고속철도차량' 수출 결실

우즈벡 영업운행… 글로벌 공략 속도

현대로템 우즈벡 고속철의 모습.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서 신규 고속차량의 영업운행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국산 고속철도차량이 해외에서 상업운행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고속차량은 수도 타슈켄트와 서부 지역의 실크로드 대표 도시 히바를 잇는 약 1020㎞ 노선에 투입됐다. 이번 개통은 국내 고속차량 산업 생태계에도 의미가 있다. 한국형 고속차량은 해외 수출을 장기 목표로 20년 넘게 민관이 연구개발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왔다.

현대로템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 상업운행 실적을 향후 해외 고속철도 사업 공략의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국산 고속차량 수출 거점을 확대해 K-철도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전자, AI 홈 연구공간 '씽큐 리얼' 재단장

LG전자가 AI 홈 솔루션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온 연구 공간을 4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LG전자는 6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AI 홈 연구공간 '씽큐 리얼(ThinQ Real)'을 리모델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현실감'이다. 100㎡ 규모로 30평대 국민주택을 그대로 재현한 내부에는 현관부터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욕실까지 갖췄으며, 인테리어 마감재·배선·조명 설계 역시 실제 가정집 수준으로 맞췄다. 여기에 AI 홈 허브 '씽큐 온'을 중심으로 수십 종의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센서를 연동했다.

이 공간에서 LG전자 연구원들은 신규 AI 기술과 자동화 시나리오를 실험·검증한 뒤 AI 홈 솔루션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축적되는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지속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병행된다.

정기현 LG전자 HS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은 "씽큐 리얼에서 쌓이는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AI 홈 솔루션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